제39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기후변화에 대처하자〉
우리부터 바꾸자!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전국 자연보호 회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 800여 명 참가
주제 〈기후변화에 대처하자-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강연, 결의대회, 자연보호 활동 사례발표, 역사 생태탐방
대구광역시장 만찬회 등

(사)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이재윤)이 9월 3일(월)~4일(화) 1박 2일간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엑스코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자 -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주제로 '제39회 자연보호 전국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주최, 자연보호중앙연맹 대구광역시협의회 주관, 환경부·대구광역시 후원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협의회에서 자연보호 회원, 유관기관 단체장,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800여 명이 참가한다.

□세미나는 9월 3일(월) 11시부터 호텔인터불고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개회한다. 개회식에는 이재윤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 부총재, 이사 등 임원들과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장 및 회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배지숙 대구광역시도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김상훈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환경부 관계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개회식에 이어 특별강연 공식행사를 마치고 19:00부터 대구광역시장 환영 만찬회가 열린다.

□개회식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회원을 비롯한 환경부 정책에 부응하여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참가자 800여 명이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범국민 생활실천 문화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자연보호 회원들의 이론 무장과 더불어 자연보호운동의 새로운 동력 창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환경보호·보전 운동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매년 전국을 순회하여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 39회를 맞았다.